

고전 추리서사의 문화적 의미 연구

— 규범세계에 대한 인지적 상상으로서* —

황인순**

<차례>

1. 서론
2. 추리서사에서 가추적 추론의 특징
3. 추리서사의 구조와 유형
4. 추리서사의 문화적 의미: 인지적 상상에 기반한 규범 모델의 암시로서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추리서사라는 개념을 통해 고전 서사, 그중에서도 문헌설화 텍스트들을 분류하고 그 구조와 인식과정을 기반으로 추리와 추론의 문화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첫째로 추리서사가 과거를 재구하며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추리는 일종의 예견처럼 보여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사건을 밝히고 그 의미를 재구성한다. 현재와 미래의 의미 역시 과거의 의미 변화를 통해 변화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추리 주체의 개별적 역량이나 선택처럼 보이는 추리의 능력이 실은 전승집단의 문화적 코드와 이상적 세계의 모델임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설화를 중심으로 한 서사에서 추리란 이상적 규범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공백과 비정상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고전 추리서사에서 나타나는 추리의 속성이 인지적 상상의 양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전 서사의 추리는 어떠한 관점에서는 개연성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2069058)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 낮거나 비합리적인 추리, 혹은 단순히 우연이나 압박에 의존한 추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서사의 개연이나 합리 혹은 사고의 개연이나 합리란 단순히 자연과학적 합리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고전 추리서사의 인지적 상상이란 문화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추론의 방식이며 이를 통해 이야기 집단이 지향하는 세계를 개연성있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리 서사는 단순히 관습적 코드를 통해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 이르지 않고, 지속적인 재해석을 통해 과거를 재구하므로, 재구된 과거를 통해 미래가 변형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 고전 추리서사, 가추법, 인지적 상상, 판결담, 이상적 규범세계

1. 서론

본 연구는 문헌설화를 중심으로 한 고전서사들을 추리서사라는 개념을 통해 분류하고 추리와 추론의 문화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추리소설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을 1900년대 이후로 본다면 추리서사라는 개념을 한국 고전문학의 연구에서 활용하는 것은 드문 일일 것이다.¹⁾ 그러나 본고에서는 고전 속 추리의 특질을 토대로 범죄와 판결이라는 행위적 관점 뿐 아니라 추리라는 인지적 관점을 통해 관련 설화의 의의를 재규명하고자 한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처벌하는 이야기들의 구조를 크게 판단과 그 수행으로 나누어 본다면 전자는 사건의 추리와 추론에, 후자는 공표와 그 처리 과정에 집중한다.²⁾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

1) 추리소설이라는 용어는 영미의 Detective story, Mystery story 혹은 프랑스의 Roman Policier 를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소설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1945년 이후 현재까지는 이들을 통칭하여 '추리소설'이라 부른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문학 영역에서 추리소설의 기원을 어느 지점으로 볼 수 있는가는 아직 논쟁적이지만, 일반적으로 1900년대 이후를 추리소설의 시작으로 본다고 지적한다.

송덕호, 『추리소설의 유형』,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32~33쪽.

2)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황인순, 『"원님보다 지혜로운 조력자" 이야기들 통해 본 판결담의 사회문화적 의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3-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와 해석의 과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추리서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이다. 첫째로 추리서사가 과거를 재구하며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추리는 일종의 예견처럼 보여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사건을 밝히고 그 의미를 재구성한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의미는 과거의 의미변화를 통해 재구성된다. 두번째는 추리 주체의 개별적 역량이나 선택처럼 보이는 추리의 능력이 실은 전승집단의 문화적 코드와 이상적 모델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설화에서는 적층된 문화적 코드를 찾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설화를 중심으로 한 서사에서 추리란 그 체계 내에서 소통되는 이상적 규범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공백과 비정상성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그간 사건과 범죄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송사 설화, 판결담, 원님 설화 혹은 지혜담, 예견담, 수수께끼담 등 다양한 범주를 통해 연구되어 왔다. 전자는 주로 처벌과 수행에, 후자는 주로 역량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성격을 규정한다. 우선 송사 설화 속에 나타나는 민중의식과 그 기능을 살핀 이인경의 연구³⁾와 송사 설화의 유형에 주목한 박여범⁴⁾과 이현웅⁵⁾의 연구를 참고했다. 수수께끼담과 추리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그 소통의 특질을 살핀 김경섭의 논의⁶⁾ 역시 참고했다. 추리서사, 혹은 인지와 해석의

2019, 95~120쪽.

- 3) 이인경, 「『송사설화』의 재해석과 현재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회 2007, 335~390쪽.
- 4) 박여범, 「『송사설화』에 나타난 민중의식과 그 기능」, 『한국언어문학』 37, 한국언어문학회, 1996, 359~374쪽.
- 5) 이현웅, 「문헌소재 송사설화의 유형과 의미」, 『배달말』 14, 배달말학회, 1989, 337~369쪽.
- 6) 김경섭, 「한국 수수께끼의 장르 정체성 및 소통 상황의 특징」, 『한국민속학』 36, 한국민속학회, 2002, 53~82쪽.

양상을 직접 다룬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에도 추리서사의 기원이 되는 텍스트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수경전 등을 중심으로 고전에서 이를 찾고자 한 오윤선의 논문⁷⁾과 개화기 한국 추리소설을 송사소설과 정탐소설계로 분류하며 추리소설의 한국적 특질을 지적한 이정옥⁸⁾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또한 연남경의 논문⁹⁾에서는 김유정의 소설에서 드러난 추리서사적 특질을 해석적 코드를 통해 서사 및 담화 구조로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서경희의 연구¹⁰⁾에서도 고전소설의 범죄와 추리 모티프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법과 관련된 추론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인지과학과 관련된 강태경의 논문¹¹⁾을 참고하기도 했다.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서사 특히 고전서사에 나타나는 추리 모티프에 관해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나 주로 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헌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추리의 서사구조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고전서사에서 추리가 가지는 문화적 의미와 의의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2. 추리서사에서 가추적 추론의 특질

본고에서는 추리적 기법이 나타나는 고전서사에 대해 추리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추리‘소설’ 연구는 “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통은 누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내

7) 오윤선, 『한국고전서사와 추리소설』, 『어문논집』 60, 민족어문학회, 2009, 37~66쪽.

8) 이정옥, 『송사소설계 추리소설과 정탐소설계 추리소설 비교 연구』, 『대중서사연구』 21, 대중서사학회, 2009, 239~277쪽.

9) 연남경, 『김유정 소설의 추리 서사적 기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2011, 55~79쪽.

10) 서경희, 『의욕()의 서사화와 추리의 기법- 옥선몽 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6, 2019, 한국고전연구학회, 79~112쪽.

11) 강태경,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방법』,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4.

거나, 범죄에 대해 종말을 가져오거나, 범죄 행위로 인한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데” 주목한다고 알려져 있다.¹²⁾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도시적 삶과 범죄의 수행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 그러나 한국고전 서사를 대상으로 추리서사의 개념을 활용할 때 이 개념은 설화의 적층성에 기반한 문화사회적 특질과 추리의 인지과정을 면밀히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문헌설화¹⁴⁾를 연구대상으로, 추리의 특질을 가진 이야기들을 추리서사라 명명하고 그 서사구조와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주체가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론의 논리적 과정을 적용하여 과거의 미완결된 사건을 완료하는 이야기들을 추리서사로 정의한다. 전승되는 설화 중에서 추리의 성격을 가진 이야기를 분

12) 이브 뢰테르에 따르면 추리소설을 미스터리, 범죄소설, 서스펜스 등으로 분류한다. 미스터리리는 풀리지 않은 전단계의 사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이중구조로 해결 자체, 조사의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범인과 조사자간의 지적 게임을 기반으로 한다. 세계의 대립이 아니라 지적 유희에 집중하여 결론에서도 사회질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진다. 반면 범죄소설은 이야기 진행이 범죄행위와 일치하며 해결이 오히려 삭제되기도 한다. 미스터리에 비해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수적이며 폭력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며 죽음은 산재하지만 열려있는 체계 속에서 참여적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서스펜스는 미스터리와 일종인데 두려움과 심리에 집중하며 미해결된 범죄와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희생을 드러낸다. 지식은 부수적이지만 주요하며 독자의 지식은 희생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추리는 이러한 기존의 분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닫힌 체계 내의 추론과정을 추리로 보는 것은 미스터리와 장르 특질과 유사하나, 고전 텍스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추리의 양상들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브 뢰테르, 김경현 역, 『추리소설』, 문학과 지성사, 2000, 77~107쪽 참조.

13) 기존의 추리소설은 산업화된 사회와 도시의 풍경을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것이며 도시와 근대화, 그리고 범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추리소설의 특질을 이 연구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브 뢰테르(2000), 위의 책, 17쪽.

14) 추리서사가 반드시 판결의 단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나, 고전서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추리에는 그 처벌을 위해 판결이 이어지는 비율이 높고, 그렇기에 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주체들이 추리의 주체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우선 문헌설화 전승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추리서사를 분류했다.

류한다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소위 황백삼 혹은 황삼술 설화로 불리는 이야기이다. 교수잡사의 전승본을 대상으로 설화에서의 추리서사적 특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 1) 선비가 아들을 늦게 보아 애지중지하다.
- 2) 아이가 예닐곱쯤 맹인 점쟁이에게 회복을 물으니 15세가 넘으면 귀한 몸이 되지만 그 안에 장가를 들면 황사할 액운이 있다고 하다.
- 3) 이를 피하려면 장가를 가더라도 신부와 잠을 자면 안되고 처가의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다.
- 3) 맹인은 떠나면서 그림이 그려진 종이 한 장을 주고 아주 위급한 일에 처했을 때 열어보라고 하다.
- 4) 아이가 15세가 되어 재상의 딸과 정혼을 하다.
- 5) 아이는 혼인을 했지만 점쟁이의 말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첫날밤도 보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다.
- 6) 처가 식구들이 이에 모두 화를 내지만 이렇게 열흘이 지나다.
- 7) 그즈음 신부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한채로 발견되다.
- 8) 이에 신랑이 범인으로 의심받아 고발당하다.
- 9) 형조판서는 이를 맡아 신랑에게 일련의 이상한 행동의 이유를 추궁하다.
- 10) 신랑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숙식과 첫날밤을 피했으며 신부를 죽이지 않았다고 답하다.
- 11) 형조판서가 이를 믿지 않자 신랑은 점쟁이가 준 그림을 떠올려 이를 형조판서에게 전달하다.
- 12) 그림을 펴보니 노란 종이에 개 세 마리가 그려져 있다.
- 13) 형조판서는 고민 끝에 신부 집에서 ‘황삼술’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다.
- 14) 군졸들이 검인 중에 황삼술이란 자를 찾아오다.
- 15) 황삼술이 자백하되, 죽은 신부와 은밀히 만나던 중에 신부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자 신랑을 죽이고 도망가기로 했으나, 신부가 마음이

변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죽었다고 하다.

16) 이에 형조판서가 황삼술을 죽이라고 명하고 신랑을 풀어준다.

17) 종이가 노란 색이라 황씨()이며 개를 뜻하는 술()을 풀이해 황삼술이라는 이름을 알아낸 것이다. 교수잡사 15)

이 이야기는 추리의 요소와 예견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추리와 예견은 종종 혼동되기도 하는데, 추리의 요소가 드러나는 지점은 형조판서가 신랑이 가져온 종이를 일종의 범인찾기 근거로서 활용하는 부분이며 예견이 나타나는 지점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점쟁이가 신랑이 사건에 연루될 것임을 예측한 부분이다. 즉 추리는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과거를 재구하는 과정이고 예견은 미래의 사건 혹은 가능성을 예측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¹⁶⁾

과거가 재구된다고 해서 과거의 사건들과 현재의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밝힌다는 것은 과거의 의미를 바꾸는 과정이므로 현재의 상태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현재의 의미는 변화한다. 신랑이 누명을 쓴 살인사건에서 첫 번째 결론은 ‘신랑이 범인’이라는 것이었지만 최종 결론은 ‘황삼술이 범인’이다. ‘신부의 죽음’을 현재 상태라 한다면 추리가 완결되어도 죽음의 상태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첫 번째 추론에서 ‘신부의 죽음’이란 현재의 상태는 ‘신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신부를 죽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반면

15) 김현룡, 『고금소총』 1, 자유문화사, 2008.

16) 추리서사(혹은 추리담)와 혼용되는 범주들로 보통 판결담, 지혜담, 예견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세가지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판결담은 판단과 공표로 구성되는 이중의 서사구조에 기반한 것이므로 추리서사 중 공표의 과정이 구체화된 것을 판결담으로 볼 수 있다. 지혜담은 추리서사보다는 상위의 범주로 반드시 논리적인거나 합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과거와 미래의 사건과 관련된 식견을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그 분류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혜를 가진 주체의 역량을 강조하고자 할 때 지칭된다. 예견담은 추리서사처럼 지혜담의 하위 범주에 속하지만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추론에서 동일한 상태는 ‘황삼술이 질투를 이기지 못해 신부를 죽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현재의 상태는 변하지 않지만 현재의 의미는 변한다. 이것은 세계는 변하지 않지만 세계의 의미는 변한다는 문장으로 치환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과거를 재구한다는 것은 현재의 의미를 바꿀 뿐 아니라, 현재 위에 놓인 미래 변화의 가능성 역시 소환하는 것이다.

이처럼 추리의 주요한 기능이 과거를 재구하는 것이라 할 때, 추리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재탐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제와 가능성을 불러오는 추론의 고유한 담화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장 잘 알려진 추론 형태는 귀납과 연역일 텐데, 이야기 속에서도 역시 귀납과 연역이라는 보편적 형태의 추론이 작동했다.¹⁷⁾ 앞선 이야기에서 ‘의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범인’이라는 추론은 축적된 관찰과 경험을 통해 귀납에 의해 구성된 논리이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비일상적 행동을 한다’가 전제가 될 때 ‘신랑이 비일상적 행동을 했다’라는 관찰 사실을 통해 ‘따라서 신랑이 범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연역적 추론의 과정이다.

신랑이 범인이라는 결론은 정황상 개연적이지만, 이것이 입증하려면 실질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 이때 문제 해결자는 두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결론에 동의한다면 적합한 물리적 증거를 찾아내야 하고,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랑이 범인이라는 결론을 폐기해야 한다. 신랑이 종이에 그려진 그림을 건네줄 때 형조판서는 후자를 선택한다. ‘누런 종이 위에 개 세 마리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종이에 그려진 그림은 범인의 정체와 관련된다’는 새로운 전제를 만들어낸 후 결국 ‘황삼술이라는 범인의 이름’이라는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¹⁸⁾

17) 예컨대 증거 A를 가진 사람은 범인이다라는 전제, 그리고 B가 증거 A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찰결과, 그리고 이로부터 그러므로 B는 범인이다로 이어지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연역적 추론이라면 귀납적 추론은 범인들의 일관된 행위와 경향을 다수 수집하여 특정한 경향을 가진 사람이 범인이다로 이어지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18) 물론 이것이 옳은 결론으로 밝혀진 것은 단순히 종이 위에 개 세 마리가 그려져 있었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비밀상적 행동을 한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종이에 그려진 그림과 관계있다
		↓	↑
		신랑이 비밀상적 행동을 했다	누런 종이 위에 개 세 마리가 그려져 있다
		↓	↓
		신랑이 범인이다	이는 황삼술이라는 이름을 뜻하며 이는 범인의 이름이다

신랑이 준 종이에 그려진 그림은, 연역의 구조 내에서는 두 번째 관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리는 관찰 사실을 토대로 역행구조로 생성되었다. 이를 가추적 추론이라 하며, 본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추리의 담화적, 인식적 구조이다. 즉, 가추적 추론이란 연역법이나 귀납 법과는 달리 전제를 재확인하는 순환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추론 방법이다.¹⁹⁾ 연역법에서는 사용되는 전제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가추법에서는 가능한 범주의 전제를 만들어내어 미완결된 추리의 과정을 완료한다. 앞서의 이야기에서 연역은 논리적으로는 오류의 가능성이 없지만,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비밀상적 행동을 한다’는 전제가 참이 아니었을 때는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귀납 역시 ‘의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확장된 결론을 생성하는 추론은 아니다.

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황삼술이라는 용의자를 찾고, 이를 통해 자백이라는 직접적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19) 마시모 본판티나와 잠파올로 프로니는 연역적 추론의 구조가 전제-관찰된 사실-결론에 이르는 삼단구성이며, 귀납이 관찰된 사실로부터 확률 높은 결론을 추론해 내는 방식인데 비해 “가추법적 추론은 관찰된 사실을 통해 전제를 추측해내는 역행적 추론의 기법”이라 했다. 즉 가추는 관찰된 사실을 토대로 결론을 상정하고 이 사실과 결론이 참일때 필요한 전제를 소환하는 과정의 추론이다.

움베르트 에코·토머스 세빅, 김주환·한은경 역, 『셜록 홈스, 기호학자를 만나다』. 이마, 2014, 200~204쪽 참조.

반면 가추는 사건과 관련된 그림으로부터 ‘그림이 범인의 정체와 관련되었다’는 새로운 전제를 불러왔으며, 결국 새로운 결론이자 실제 사건의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가추법이 귀납이나 연역보다 안전한 추론은 아니지만 사건의 진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의심하는 과정에서 유효한 것이다.

추리서사의 서두에서는 보통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리를 통해 범인을 찾거나 잘못 해석된 증거가 있다면 다시 해석해서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문제 인지와 해결 사이에 시간적 지연 혹은 논리적 간극이라는 일종의 ‘공백’이 생겨나게 된다. 이 공백을 매우는 것이 가추를 통한 추리의 과정이다. 증거의 진위, 심증의 진위, 증거의 결여 등이 만들어내는 논리적 간극에 추리가 개입하여 이야기가, 혹은 논리 및 추론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어떤 것들은 진실로 밝혀지지만 어떤 것들은 가짜 증거나 가짜 심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론이 완전하게 진실로 입증되기 전까지 추리는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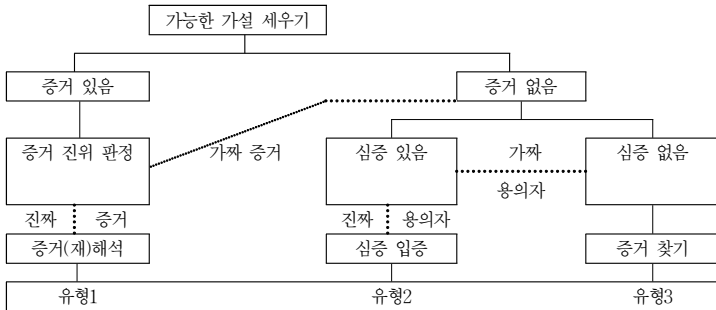
3. 추리서사의 구조와 유형

따라서 추리서사는 문제의 발생-가능한 가설의 제시-가추를 통한 해결 방법의 제언-사건의 재구라는 서사구조로 요약된다. 세 번째 가설의 제시 단계에서 증거 유무에 따라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진다.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위를 밝히고 증거가 진실로 입증될 때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증거가 없는 사건은 다시 심증은 존재하는 경우와 어떠한 심증도 존재하지

않는 미결의 경우로 나뉜다. 심증이 존재할 때는 관련 증거를 찾아 확인의 과정을 거치고, 심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다시 추론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추리서사를 크게 세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⁰⁾

이에 기반하여 문헌설화를 중심으로 추리서사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질을 분석하고자 한다.²¹⁾ 우선 증거가 없고 심증도 없는 첫 번째 유형의 이야기기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미결되어 범인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이야기들인 경우도 있으나 사건이 발생하고 순차적으로 범인을 찾아나가는 가장 일반적 형태의 추리서사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바로 찾아낸다는 것은 오히려 드문 일이고, 추리의 전제를 새롭게

20) 이를 표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21) 본고의 연구는 자료의 확립보다는 그 문화적 의미를 찾아내는 데에 방점을 두고 수행 될 것이다. 따라서 문헌설화의 목록을 한정하지는 않았고, 문헌설화에 수록된 설화 중 어떤 구조의 설화를 추리서사로 분류할 수 있는지 밝히고 이러한 구획을 통해 어떤 새로운 문화적 의미가 도출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헌 설화집은 성수패설, 송천필담, 청구야담, 동야취집, 교수잡사, 기문총화 등 18세기-19세기의 설화집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중 기문총화, 청구야담 등은 18세기를 전후로 한 잘 알려진 야담집이며 송천필담 등은 필기잡록으로 분류되 기도 한다. 그러나 야담과 필기, 잡록 등의 서사들을 야담의 연구 영역 아래 다루고자 하는 연구들은 적지 않았으며, 이러한 글들 역시 서사적 성격을 가진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장르를 엄밀히 분류하기보다는, 문헌설화라는 용어를 통해 글로 전승된 설화들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했다.

만들어 그 전제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전제를 만들고 증거를 수집하여 추리를 완결하고 검증하게 된다.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 청주 목사 정효성이 종이를 팔아 사는 종이 종이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호소를 듣다.
- 2) 정효성은 해결이 불가하다고 중을 쫓아내다.
- 3) 정효성이 길가의 고목을 잡아다 가두라고 역지를 쓴 후 아전들이 밤새 지키게 하다.
- 4) 밤에 살펴보니 아전들이 모두 자고 있어 이를 꾸짖으며 집집마다 종이 한권씩을 내어 이름을 쓰게 하다.
- 5) 종이 잃어버린 중에게 자신의 종이를 찾으라 하고 이를 산 사람의 뒤를 추적하여 범인을 찾아주다. 기문총화 22)

정효성은 종이 종이를 도난당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종이 고한 사건의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다. 추리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범주를 좁혀야 하며 그 범주 안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대신, 가능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범주를 먼저 구체화한다. ‘범인은 마을 안에서 종이를 처리했(을 것이다.)’이라는 전제를 세우는 것이다. 이 전제를 토대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관찰한 것이 ‘마을 안 모든 종이의 출처를 조사’한 것이다. 관찰 결과를 토대로 범인이 훔친 종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범인을 찾는 추리가 완결된다.

22) 김동욱 역, 『국역 기문총화-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 하, 아세아문화사, 2008, 203쪽.

		없음	범인은 마을 안에서 종이를 처리했다
		종이 종이를 도난당했다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종이의 출처를 조사하니 범인이 훔친 종이가 있다
		미결	범인이 밝혀지다

이 이야기에서는 추리를 완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추론이 완결될 수 있는 적절한 전제를 세우는 것이었다. 가추적 추론을 통해 새로운 전제인 ‘범인은 마을 안에서 종이를 처리했다’를 만들었지만, 참이 아닐 수도 있다. 혹은 해당 전제는 가능한 복수의 전제들 사이에서 선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경우 선택한 가설이 옳지 않을 때 가능항들 사이에서 다른 전제를 선택해야 한다. 다행이 이 이야기에서는 옳은 전제를 세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처럼 적합한 가설을 만드는 것을 주체가 비범한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명석함만은 아니다. 명석함이라는 틀 안에서는 범인이 마을 안에서 종이를 처리했다는 전제를 어떻게 세울 수 있었는지, 왜 가능한 복수의 전제 중 그 전제를 선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문제해결 주체가 사건의 속성과, 공동체의 특징, 누적된 유사한 사건의 전례 등과 관련된 축적된 지식과 직관을 활용했으며 이것이 해당 전제를 선택한 이유가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종이 유통은 보편적으로 이 마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나, ‘잃어버린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물건은 가까운 지역에 있다’ 등과 같은 축적된 범죄 사건의 경험 등이 이러한 전제를 세우는 데에 작동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추리 과정의 최초 전제를 세우는 데에 활용되는 배경 지식을 ‘추리의 코드’라 명명하여 추리에 사용되는 전제에 영향을 끼치는 메타전제로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추리의 코드는 가추를 구동하는 경험, 지식, 사고 등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해당 코드를 인지하는 주체라면

적합한 추리의 전제를 세울 수 있다.

		없음	↗	범인은 마을 안에서 종이를 처리했다
		종이 종이를 도난당했다	↑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종이의 출처를 조사하니 범인이 훔친 종이가 있다.
		미결	↑	범인이 밝혀지다
		-종이 유통은 보편적으로 이 마을 내에서 이루어진다. -잃어버린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종이는 가까운 지역에 있다.		

증거가 없으나 심증이 있는 유형의 이야기들은 두 번째 유형이다. 심증이 있어 용의자를 특정하기는 했으나 이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인지된 사건과 정황을 토대로 새로운 전제를 세운다는 점에서는 앞 유형과 유사하지만 심증이 상대적으로 명확히 제시되는 유형이므로 전제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줄어든다. 심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추론을 완결하게 된다.

- 1) 구봉서가 경상 감사일 때 김천룡()이라는 이가 그를 무고하다가 실패했다.
- 2) 이어 전대음()이라는 자가 투서를 하다.
- 3) 구봉서가 전대음이 김천룡과 동일인일 것이라고 추론하다.
- 4) 조사해보니 김천룡이 범인이었으며 전대음이라는 이름에 다시 점과 획을 첨가하면 본명인 김천룡과 같아지는 것이었다. 송천필담 23)

이 이야기에서 문제 상황은 전대음이라는 사람이 투서를 한 것이다. 범인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김천룡과 전대음을 동일인으로 추리한 것은 파자의 지식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김천룡이 범인이라는 추측은

23) 신익철 외 역, 『송천필담』 1, 보고서, 2009, 538쪽.

구봉서의 경험을 통한 심증일 뿐이지만 이를 추리의 전제로 놓아 보는 것이다. 그 전제가 참이기 위한 증거는 이름의 자형이 유사하다는 관찰 결과이다. 전대음과 김천룡이라는 이름이 한자의 조합을 통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추론을 시도하고, 진위를 가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전대음의 무고를 김천룡의 무고로 연결하는 추리까지의 논리적 공백은 꽤 넓다.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번 무고한 인물은 다시 무고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김천룡이라는 이의 인물됨을 통해서 그가 무고를 할 여지가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를 무리한 추론으로 볼 수도 있으나 참이 되었다면 이것은 역시 축적된 경험이나 범죄심리의 파악에 기반하는 추리의 코드에 기인한 전제 형성이다.

		없음	↗	김천룡이 다시 무고를 하다.
		전대음이 (거짓) 투고를 하다	↑	전대음과 김천룡이라는 이름이 한자의 조합을 통해 변형될 수 있다
		미결	↑	김천룡과 전대음은 실제로 같은 사람이다
		-한번 무고한 사람은 계속 무고를 할 수 있다. -김천룡의 인품을 고려할 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1) 송당 박영이 김해부사로 있을 때 울음소리를 듣고 우는 여인을 잡아오도록 하다.
- 2) 이유를 묻자 여인은 남편이 아무병도 없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다.
- 3) 박영이 여인을 의심하자 여인과 마을 사람들이 부부간의 의가 좋았다고 하다.
- 4) 박영이 시신을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흔적이 없다.
- 5) 박영이 군교를 시켜 시체의 가슴부터 배를 눌러보았더니 대꼬챙이가 튀어나오다.
- 6) 박영이 여인을 문초하자 여인이 다른 이와 동거를 약속하고 남편이 취해 자는 틈을 타 죽었다고 하다.

- 7) 박영이 여인의 정부를 잡아 확인하고 조치하다.
 8) 사람들이 박영에게 의심한 이유를 묻자 우는 기색이 진심이 아니었고 시체를 검시할 때 두려워하는 기색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다.²⁴⁾

이 이야기에서 추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김해부사 박영이며 문제 상황은 남편이 죽어 우는 부인을 발견한 것이다. 남편이 죽은 사건은 그 자체로 종결된 것이지만 박영은 직관적으로 이상한 지점을 감지하고 여인을 의심한다. 용의자가 특정된 셈이지만 여전히 물리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새로운 추리, 즉 ‘아내가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을 입증하려면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들키지 않았다’는 전제를 입증할 물증을 찾는다면 박영의 추리가 옳은 것이 된다.

박영은 시체의 가슴부터 배를 둘러보고 숨겨진 흔적을 찾는다. 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점에 상흔을 남기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상처의 위치가 있을 것’라는 전제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영의 심층인 ‘남편은 아내에 의해 살해당했으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영의 추리 역시 꽤 넓은 간격의 공백을 뛰어넘는다. 이는 ‘살인이 자연사로 잘못 판단될 수 있다’는 직업적인 경험에 기인한 추리의 코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남편의 죽음을 두고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다소 관습적인 고정관념 역시 크게 작동한 것이다.²⁵⁾

24) 김동욱 역, 『국역 기문총화-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 상, 아세아문화사, 2008, 290쪽.

25) 유사한 이야기로 소한세설의 엄현 설화를 들 수 있다. 추리의 배경이 거의 동일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엄현이 아니라 아전의 아내라는 점이 다르며, 엄현이 그 아전의 아내가 이전에 같은 범 죄를 저질렀으리라는 것까지 추론하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서사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발해 동쪽의 한군이 인심이 거칠어 임금이 듣고 근심하다.

		사건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자연사이다	↑
		시신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다	↑
		남편이 죽다	↑
		-남편의 죽음을 두고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살인이 자연사로 잘못 판단될 수 있다.	

- 1) 한 떡장수가 시루에 떡을 찌두고 방에 들어가 잠깐 잠든 사이에 떡이 사라지다.
- 2) 근처에서 남의 집 개와 닭을 훔쳐 잡아먹는 동네 젊은이들이 떡 도둑이라 생각하여 고발하다.
- 3) 관장이 이들을 잡아 올 것을 명하다.
- 4)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떡을 먹은 적이 없다고 잡아 떼다.
- 5) 관장이 사령에게 냉수를 가져오라고 해 젊은이들에게 물로 양치를 한 후 도로 그 물을 뱉으라고 명하다.
- 6) 뱉은 물에 떡고물이 붙어 나와 범인을 잡고 떡값을 물어주게 하다. 성수 패설 26)

-
- 2) 엄현이 태수가 되어 이곳을 다스리겠다고 자원하다.
 - 3) 엄현이 부임하다가 군의 지경에서 어떤 부인의 울음소리를 듣다
 - 4) 들어보니 우는 것 같지만 웃는 것 같아 아전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남편이 죽었다고 하다.
 - 5) 아전에게 명하여 그 부인에게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보라 하다.
 - 6) 아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에 가 고민하니 아전의 처가 이유를 묻다.
 - 7) 아전이 처가 시체의 정수리에 바늘이 꽂혔거나 배꼽에 못이 박혀 있을 테니 이를 살펴보라고 전하다.
 - 8) 아전이 태수에게 이를 보고하니 태수가 시체에서 이 흔적을 찾아내다.
 - 9) 태수가 아전에게 그 처가 정치인지 측실인지를 물어 과부와 재혼한 경우임을 파악하다.
 - 10) 엄현이 아전의 처와 이전의 부인을 모두 불러 (살인의 사실)을 문초하고 매를 때려 죽이다.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1,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358쪽.

26) 김현룡, 『고금소총』 2, 자유문학사, 2008, 48쪽.

성수패설 의 설화 역시 유사하다. 떡을 도난당한 떡장수는 주변의 불량한 젊은이들을 범인으로 추론한다. 물론 남의 집 개와 닭을 훔쳐 잡아먹는 젊은이들을 떡도둑으로 의심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지만, 완전히 개연성 없는 추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관찰될 때만 젊은이들이 떡을 훔쳐먹었다는 결론이 확정된다. 관장은 떡장수가 특정한 용의자를 사건의 진짜 용의자로 확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 절도의 경향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떡장수의 가설에 관장 역시 동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없음	↗	떡을 먹었다면 입안에서 떡고물이 나올 것이다
		떡이 사라졌다	↑	젊은이들의 입에서 떡고물이 나온다
		미결	↑	젊은이들이 떡을 훔쳤다
		개와 닭을 잡아먹는 이들은 떡도		훔쳐먹을 수 있다

앞서의 이야기들과는 달리 증거가 있는 이야기들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이미 발견된 증거는 대부분 심증과는 대립된다. 만일 증거가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증거를 폐기하고 ‘증거가 없는’ 이야기의 유형들에서처럼 추리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증거가 가짜가 아닐 때는 실재하는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심증으로 특정한 용의자가 있지만 물증이 심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증거의 진위판정이 필요할 수 있다. 혹은 증거가 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발견된 증거를 통해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추리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이야기들에서는 전체에 맞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증거를 전체에 맞도록 해석하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 1) 눈내린날 밤 손님이 와서 자고 새벽에 몰래 갔는데 소가 없어지다.

- 2) 도난당한 주인이 이를 구봉서에게 호소하다.
- 3) 손님을 의심하지만 눈 위에 사람의 짚신 발자국만 있고 소발자국이 없다고 하다.
- 4) 구봉서가 손님을 불러 문초하자 손님이 이를 부인하다.
- 5) 구봉서가 소는 뒷발이 반드시 앞발의 밟은 자리를 밟으므로 뒷발에 사람의 짚신을 끼워 신기고 사람이 소를 타고 가면 사람이 혼자 걸어간 발자국 모양과 같아진다고 하다.
- 6) 손님이 범인임을 실토하다. 송천필담 27)

이 이야기는 앞서에서 이어지는 구봉서의 일화이다. 새벽에 집에 드나든 사람이 손님뿐이기에 손님이 용의자이지만 눈 위에 사람의 발자국만 있다는 증거에 의해 부정된다. ‘범인이라면 눈길위에 자신의 발자국과 소의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전제에 의해 ‘사람(손님)의 발자국만이 눈길 위에 남아있다’는 관찰된 사실이 이어지면서 ‘그렇다면 손님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만일 정말 소를 훔친 사람이 손님이라면, 발견된 증거가 거짓이거나 왜곡되어야 하며, 소를 훔친 사람이 손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용의자와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구봉서는 전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논리에 맞지 않는 증거는 인정하되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다.

관찰된 사실은 동일하지만,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해석은 ‘짚신을 신고 찍힌 자국’이라는 해석으로 변형된다. 두 개의 발자국=사람의 발자국이라는 보편적 해석은 삭제되고 대신 두 개의 발자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다른 개별적 가능성, 즉 ‘소의 발에 짚신을 신기고 소를 타고 가면 발자국이 두 개만 남는다’는 지식이 활용된다. 처음 추론에서 ‘두개의 발자국이 있다’는 손님이 범인이라는 심증과 모순된 증거였지만, 재해석을 거치면 손님이 범인이라는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27) 신익철 외 역, 『송천필담』 1, 보고사, 538쪽.

		범인이라면 눈길위에 자신의 발자국과 소의 발자국을 남긴다	범인이라면 눈길위에 자신의 발자국과 소의 발자국을 남긴다
		사람(손님)의 발자국만이 눈길 위에 남아있다	↑ 눈길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
		(사람 혼자 집을 나갔으므로) 손님은 범인이 아니다	↑ (소와 손님이 함께 두 개의 자국을 남길 방법이 있으므로) 손님은 범인이다
		-발자국이 두 개인 것은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소의 네 발자국으로 두 개의 발자국을 만들 수 있다.	

아래의 이야기 역시 세 번째 유형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단, 이 이야기는 두 번의 추리가 이어지는 이야기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추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증거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는 세 번째 유형의 추리에 해당하며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이어지는 과정은 새로운 용의자를 특징하는 두 번째 유형의 추리가 혼합된 것이다.

- 1) 이세재가 영남 감사이던 시절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결혼이 정해진 상태였다.
- 2) 유모를 만나러 나가던 처녀를 행상인이 보고 계락을 꾸몄다.
- 3) 행상인이 유모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병을 낮게 해달라며 바지와 허리띠를 새벽에 잠자는 처녀의 이불 속에 넣어달라고 하다.
- 4) 이에 유모가 행상인의 말대로 하다.
- 5) 행상인이 날이 셀 때 쫓 대문을 두드리면서 처녀 방에서 자고 나오면서 두고 온 바지와 허리띠를 달라고 하다.
- 6) 처녀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라고 쫓겨났으나 오히려 이를 관가에 고소하다.
- 7) 이세재가 사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유모를 불러 문초하다.
- 8) 유모가 죄를 자백하여 유모와 행상인을 죽여 벌하다.
- 9) 정혼한 총각을 불러 소문에 개의치 말고 결혼을 하도록 하며 결혼 비용을 대주다. 성호사설 28)

이 이야기에서는 행상인이 처녀의 방에 바지와 허리띠를 두고 나왔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아 관가에 고소한다. 이세재는 이 바지와 허리띠를 돌려주게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세재는 고소 자체가 허위라 추리한다. 이는 고소 내용에 함축된 의미 때문인데, 행상인이 바지와 허리띠를 두고 나왔다는 것은 처녀의 방에서 행상인이 밤새 머물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세재는 이것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마도 결혼을 앞둔 처녀가 굳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실제로 두사람이 연인 사이라면 그러한 일을 관가에 고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논리적 공백 사이에서 이루어진 추론일 것이다.

처녀의 방에 남겨진 바지와 허리띠는 행상인이 머물렀다는 관점에서는 거짓 증거이기도 하지만 추문을 생성해낸 사건이라는 관점에서는 진짜 증거이기도 하다. 이세재는 ‘바지와 허리띠’라는 증거를 ‘행상인이 남겨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남겨둔 것’으로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면서 2차 추론의 결론은 ‘누군가 행상인의 바지와 허리띠를 처녀의 방에 두었다’는 것으로 바뀌고 자연스럽게 남겨진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그 범인에 대한 추리를 수행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만이 양반가 처녀의 방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전제를 세우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 유모의 자백이라는 실재 증거를 수집하면서 최종 추리를 완결한다.

28) 『성호사설』을 야담집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은 감상과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라는 배경을 토대로 본다면 수록된 이야기들은 기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서사로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이야기는 『구비문학대계』에도 유사한 형태가 실려 있으므로 전승되는 이야기들 중 하나의 형태라 보며, 문헌화되어 있는 이야기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성호사설』에 실린 본을 제시했다.

이익, 고정일 역, 『성호사설』, 동서문화사, 2016, 552쪽.

				↑	가까운 사람이 물건을 처녀의 방에 둘 수 있다
	행상인이 바지와 허리띠가 처녀의 방에 두다		↑	↑	가장 가까운 사람은 유모이다
	처녀가 행상인의 바지와 허리띠를 돌려주지 않다(=처녀의 방에서 행상인이 밤새 머물렀다)		↑	↑	유모가 행상인의 바지와 허리띠를 처녀의 방에 두다
	-특정 물품이 특정 공간에 있다는 것이 물품의 소지자가 해당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행상인을 방에 머물게 할 가능성이 적다 -양반처녀와 유모와의 관계는 관습적으로 매우 가깝다				

4. 추리서사의 문화적 의미

: 인지적 상상에 기반한 규범 모델의 암시로서

추리서사로 분류될 수 있는 설화들은 단순히 전승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추리와 추론의 개연성을 제시한다. 추리의 과정이 특정한 과학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구조 안에서 가능한 합리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전서사의 추리는 단계적 추론만을 밟아나가는 것도 아니며 과학적이거나 엄밀한 관찰만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관점에서 설화 속의 이러한 추리들은 개연성이 낮은 추리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단순히 우연이나 압박에 의존한 추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서사의 개연이나 합리 혹은 사고의 개연이나 합리란 단순히 자연과학적 합리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추리의 과정에서 구동된다고 지적한 가추법은 실제로 확률이 매우 낮은 추론의 방식으로 일종의 상상력에 기반하는 추론이다.²⁹⁾ 그러나

29) 노양진의 연구에 따르면 마크 존슨은 상상력과 경험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한다. 이성과의 대비로서 이해되던 상상력의 개념을 수정하여 상상력을 경험을 구성하는 것으로 재구성하고 단순히 시적이거나 예술적인 직관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전반에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 공백을 메우는 그와 같은 인지적 확장의 행위들이 결국은 사건의 진실을 재구하는 기반이 되며 때로는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1차 추론에서 2차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사실 조사 그 자체에 기반하기보다는 오히려 설명가능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상상의 과정에 가깝다. 1차 추론과 2차 추론의 각각 별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종결된 첫 번째 이야기에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장면들을 다른 이야기 장면으로 대체해서 그 모순을 해결하고, 적합한 다른 결말을 맺는 다른 이야기로 구상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고전 추리서사의 추리가 가추에 기반한 상상적 과정이라는 것은 다소 역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추가 반드시 확률이 가장 높은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추론이 아니라 새로운 전제를 밝히고자 하는 추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하는 추리의 과정에 가추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상적 추론은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주체는 문제해결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그려낼 수 있는 이야기적 주체로 보아야 하는가. 그러나 추리서사에서의 상상은 단순한 이야기적 확장도, 공상의 구현도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를 인지적 상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추리가 가추를 통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가진 전제를 지속적으로 생성해내는 행위라면 추리의 능력이란 사건과 관련된 전제를 수집하고 이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된다. 그런데 사건의 새로운 전모를

걸쳐 작동하는 근원적 인지적 기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상상력의 인지적 혹은 인식적 구조를 재인식하고자 한다.

노양진, 『몸이 철학을 말하다-인지적 전환과 체험주의의 물음』, 서광사, 2013, 115~117쪽.

밝힐 수 있는 생산적 전제나 혹은 새로운 사실 해석이 이루어질 때, 이는 일종의 메타 전제에 의해 지시되는 것이라 했다. 인지적 상상이란 완벽하게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추리가 이루어지기보다 다소 헛거워 보이는 추리의 코드, 즉 메타전제의 영향을 받아 시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해’라는 관찰적 사실은 ‘성품이 나쁜 사람이 갈등 상황에 있는 상대를 해칠 수 있다’는 메타코드에 의해 ‘엄씨는 이중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전제를 생성한다. 또한 ‘양반처녀와 유모와의 관계가 관습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메타 코드가 있다면, ‘처녀 방에 놓여진 주인을 모르는 물건’을 ‘유모가 놓아둔 물건’이라는 전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새로운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 전제는 직관이나 명석함이라는 개인의 능력도 아니며 과학이나 수치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경험이나 혹은 관습, 체험 등을 코드화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타 전제는 법적 추론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거나 체계의 관습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나 공통의 문화적 기반 하에 합의된 관념을 드러낸다. 구비전승된 이야기들이 일종의 적층성과 집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추리의 방향은 이야기가 지향하는 세계의 모형을 함축한다.

다시 말해 고전 추리서사는 이처럼 문화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추론의 방식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코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코드들이 각각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여 이를 확장하는 과정인 것이다. 추리와 상상이라는 지적을 통해 상상의 전복성을 떠올리겠지만 이처럼 인지적 상상은 이야기 집단이 지향하는 세계를 재구성하는 것일 뿐 항상 전복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어 종이를 도난당했다고 했을 때, 종이 유통의 영역을 마을 내로 한정하는 것은 그간 수행해온 판결의 누적적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무고가 한 사람에게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파악한 것은 상

대에 대한 경험, 혹은 범죄 패턴에 대한 경험 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추론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필요 없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간극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고 추리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전제가 항상 과감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종이 분실을 종이 도난의 상황으로 상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누가 훔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를 생각하는 개연 정도이다. 그런 경우 문제 해결자가 추리를 위해 활용하는 코드들은 대부분 경험적이거나 관습적인 지식일뿐 완전히 창조적인 것은 아니다.

추리를 위해 흔하게 사용되는 첨자나 파자에 대한 지식도 이와 같다. 이는 한자로 기술된 이름이나 단어를 의미로 인식하지 않고 형태로 인식한 후 이를 재배치 하는 전환과 연관된다. 이는 특정 문화권 안에서만 가능한 소통과 해석의 방식이다. 김천룡()과 전대음()이라는 이름은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지만 한자로 인식할 때는 도상적 유사성을 확보한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황삼술 설화에서도 황색종이, 그림으로 그려진 개 세 마리라는 다른 층위의 사물들을 언어적 인접성의 관점에서 재조합하여 ‘황삼술’이라는 이름을 추론해낸다. 그림의 발수신자가 다른 문화권에 있다면 이 그림은 ‘읽혀지지’ 못한다. 황색 종이, 개, 세 마리라는 그림을 한자화하여 인식할 수 있는 문화권이어야 이 그림은 암호로서 인지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이야기에서 추리의 기능은 보다 예각화되며, 논리적 공백을 메우는 상상력의 역할은 보다 적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남편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거나 저잣거리의 불량배들은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하는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상상력처럼 보인다. 그러나 악처인 것과 남편을 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닭과 개를 훔쳐 먹는 이들이 떡을 훔쳐먹는다는 가정은 개연성이 있지만 인과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제시한 이야기에서 추리는 진실로 드러나지만 그와 별개로 추리에 사용된 코드들이 개연적이고 합리

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서사의 추리가 단순히 비합리적인 혹은 고정관념적인 체계 안에 있다고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만일 앞선 추리의 코드들을 당위적 명제로 바꾸면 이러한 상상의 근거는 좀 더 명확해진다. ‘(좋은)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해야 한다’이거나 ‘저잣거리에서 물려다니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된다’ 혹은 ‘결혼을 앞둔 처녀가 함부로 낯선 남자를 방에 들이면 안된다’와 같은 명제이다. 이것은 추리 주체가 지향하거나 구축하려는 이상적 세계의 모형을 함축하는 명제이다. 이렇게 인식된 모형 안에서 그에 배치되는 비이상적 행위들은 의심받을만한 혹은 의아한 대상이 된다. 이러한 추리가 결국 진실로 밝혀진다는 것은 이상적 세계에서 있음직한 이야기를 상상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논리적 간극이 큰 추리에 활용되는 상상적 전제가 오히려 가장 이상적 세계에 부합하는 당위와 가깝다는 것은, 이러한 상상력이 단순히 공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과 조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애도에 관한 이상적 모델³⁰⁾이 있다면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을 밝혀내는 데에 도움을 준다. 즉,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남편을 잃은 아내의 애도에는 진심어린 눈물과 표정, 상실감의 표현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아내의 반응은 이와 같은 모형에서 벗어난다. 단순히 직관적 판단이거나 상상적 가정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를 비관습적이고 비경험적이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의 추리가 시작된 것이다. 아내의 반응을 ‘남편의 죽음을 두고 진심

30) 본고에서는 스톡홀름의 이상화된 인지모형(ICMS)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상적 모델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톡홀름에 따르면 “이상화된 인지모형은 우리가 지식을 조직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인지모형은 1)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설정된 범주 사이의 관계로 구성되며 개인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세계와 우리의 인생을 이를 통해 이해하고 타협하는 수단 2)원형효과와 기본 범주 의미를 야기한다. 따라서 인지과학이 언어와 사고의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중재하는 과정의 기초”이다.

피터 스톡홀름,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66~69쪽.

으로 슬퍼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은 적절한 애도에 관한 관습적이기도 경험적 모델을 상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제대로 울지 않는 부인을 의심한 것은 제시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남편이 죽었으나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거나 남편을 죽이는 부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 전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부인의 진정한 애도'와 나아가서는 '덕목'이 존재하는 이상적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문화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해했으므로 그 체계 안에 포용될 수 없는 요소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조금 단적으로 말한다면, 진정한 애도가 없는 부인이 남편을 죽인 세계는 설명가능하지만, 진정한 애도가 없으면서 남편을 죽이지도 않는 세계는 그보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로 인식되는 것이다.

사실 그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추리에서 추리의 주체들은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그것들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역시 배치되어 있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이상적 세계에서 적용되는 지식을 활용해서 풀어내거나, 완결된 추론과정에서도 숨겨지지 않은 머뭇거림을 모델 세계와 가장 합치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거나, 혹은 발생한 균열들을 서둘러 밝혀 봉합하기 때문이다. 결국 추리서사에서 활용되는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새로 구축한 전제가 모순 없이 작동될 수 있는 세계의 성립이다. 2차 추론에서 생성된 새로운 전제, 혹은 이에 따른 새로운 관찰 및 증거의 취득은 새로 생성한 추리의 코드가 작동하는 세계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1차 추론은 단순히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구성된 세계의 지향과 합치되지 않기에 폐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이 유통이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세계일 때 '잃어버린 종이가 마을 안에 있다'는 전제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처녀가 행상인을 방에 머물게 하는 것이 금기인' 세계 안에서야 '행상인의 바지와 허리띠'라는 명확한 물증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추리서사가 문제적 상황이나 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음에도 이러한 코드가 법이나 규칙뿐 아니라 체험과 경험, 그리고 관습적 영역과 가깝다는 것은 흥미롭다. 따라서 전제를 만들어낸 상상력은 사실은 전복적인 것도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며 또한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도 아니다. 이것은 공유된 문화코드를 인식하는 변형적 틀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추리서사가 가지는 의미는 보다 명징하게 구축될 수 있다. 추리서사는 기존에 누적된 경험과 체험의 맥락 속에서 가능한 추리의 영역을 제시한다. 영역을 뛰어넘는 비범함이 추리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각각의 사건들이 보유한 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고전 추리서사 내의 추리인 것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문헌설화 소재 텍스트들을 통해서 추리서사의 서사구조를 살피고, 고전서사 속의 추리가 가지는 의미와 특질을 정리해보고자 했다. 과거의 재조직 없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지혜나 예견이라고 한다면, 왜 꼭되었거나 잊혀졌던 과거를 재조직해서 현재에 재구성하는 것이 추리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합리와 상상적 해석을 결합하는 인지적 상상이 추리의 기반이 되며, 이것은 추리라는 방법론과 설화의 이야기적 요소가 맞닿는 지점이기도 하다. 추리의 주체가 수행하는 추론은 어쩌면 어느 만큼 닫힌 체계 안의 것이다. 앞서 제시한 추리소설에 관한 설명을 상기한다면, 이것은 ‘보수적이고 닫힌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 이후의 추리소설에서는 사설 탐정을 필두로 한 다양한 추리의 주체들이 제시되는 데에 반해, 고전 추리서사들에서는 법규와 관습을 체득한 공적 주체들이 주로 추리의 주체로 기능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고전 추리서사가 가진 한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사적인 개인이 적극적으로 추리를 수행하는 추리 '소설'의 세계와 달리 공적 주체가 추리의 영역을 주도하는 것이 '고전 추리서사'의 세계이다. 이는 문헌전승이라는 전승적 특질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적 주체들에게 기대하는 수행 모델을 좀 더 구체화하려는 문화적 지향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추리에 활용되는 다양한 코드들이 관습적이거나 역사문화적 맥락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추리를 통해 최종 문제 해결에 이르고자 하는 경향에 주목한다면 그 주체나 판단의 맥락이 다소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한계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추리서사는 단순히 관습적 코드를 통해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 이르지 않고, 지속적인 재해석을 통해 과거를 재구하므로, 재구된 과거를 통해 미래가 변형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법규와 관습을 체득한 추리의 주체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과거의 재구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체계의 문화와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한 면모가 드러나는 세계와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존재하는 것이 고전 추리서사의 보편 모델인 셈이다. 은폐된 진실과 잘못된 해석을 기반으로 구성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추리가 기능하고, 변형된 새로운 과거 아래 흘러가는 현재와 미래는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추리서사에서 드러나는 과거의 재구축이란 그 자체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열린 관점이 된다.

참고문헌

- 김동욱 역, 국역 기문총화-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 상, 아세아문화사, 2008, 1~688쪽.
- 김동욱 역, 국역 기문총화-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 중, 아세아문화사, 2008, 1~686쪽.
- 김동욱 역, 국역 기문총화-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 하, 아세아문화사, 2008, 1~689쪽.
- 김현룡 역, 고금소총 1, 자유문화사, 2008, 1~357쪽.
- 김현룡 역, 고금소총 2, 자유문화사, 2008, 1~355쪽.
- 김현룡 역, 한국문헌설화,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1~503쪽.
- 대중문학연구회,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1~356쪽.
- 마크 존슨, 노양진 역, 도덕적 상상력, 서광사, 2008, 1~528쪽.
- 움베르트 에코·토머스 세빅, 김주환·한은경 역, 셜록 홈스, 기호학자를 만나다. 이마, 2014, 1~440쪽.
- 이브 뢰테르, 김경현 역, 추리소설, 문학과 지성사, 2000, 1~268쪽.
- 피터 스톡웰,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1~304쪽.
- 강태경,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방법』,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4, 1~262쪽.
- 김경섭, 『한국 수수께끼의 장르 정체성 및 소통 상황의 특징』, 한국민속학 36, 한국민속학회, 2002, 53~82쪽.
- 김옥숙, 『한국 구비지혜담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236쪽.
- 류정일, 『문헌 전승 <아랑설화> 연구-서사 구성과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 25,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71~101쪽.
- 박여범, 『에 나타난 의 과』, 한국언어문학 37, 한국언어문학회, 1996, 359~374쪽.
- 서경희, 『의옥()의 서사화와 추리의 기법-〈옥선몽〉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79~112쪽.
- 신동훈, 『인지기제로서의 스토리와 인간 연구로서의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42, 한국구비문학회, 2016, 59~104쪽.

- 연남경, 『김유정 소설의 추리 서사적 기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2011, 55~79쪽.
- 오윤선, 『한국고전서사와 추리소설』, 어문논집 60, 민족어문학회, 2009, 37~66쪽.
- 이윤희, 『퍼스의 다이어그램적 추론과 알레고리적 독서-김연수의 작품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55, 한국기호학회, 2018, 195~223쪽.
- 이인경, 『『삼국사기』의 재해석과 현재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회 2007, 335~390쪽.
- 이정옥, 『송사소설계 추리소설과 정탐소설계 추리소설 비교 연구』, 대중서사연구 21, 대중서사학회, 2009, 239~277쪽.
- 이현홍, 『문헌소재 송사설화의 유형과 의미』, 배달말 14, 배달말학회, 1989, 337~369쪽.
- 장현근, 『『삼국사기』의 문헌소재 송사설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103쪽.
- 조형래, 『『소설()』의 사실, 법률과 재판: <와사육안>과 이해조의 <구마검>, <구의산>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41~67쪽.
- 황인순, 『『원님보다 지혜로운 조력자』 이야기를 통해 본 판결담의 사회문화적 의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3-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95~120쪽.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Korean classical mystery tales:
Inference as cognitive imagination

Hwang, In-soo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Korean written folktales based on the concept of mystery and investigate the cultural meaning of inference. There are two reasons to investigate the cognition of a mystery tale. First, mystery is a reconstitution of the past using abduction reasoning, which is similar to the imagination. It signifies how mystery tales restructure the past and present the possibility of the future through inference. Second, the process of inference is to find the implication of the system model to which the subject is oriented. It intends to analyze how the idealized cognitive model interacts with imagination and cognition in mystery. The folktale is a literary genre in which stacked cultural codes are the most unfiltered, it is therefore considered to be the most effective genres for accessing the cultural significations of mystery.

The tendency toward conservative subject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xt of judgment can be regarded as a limitation. However, the object of mystery tales not only achieves the understanding of a case but also reconstitutes the past through repeated reinterpretation. Therefore, the reconstruction of the past represented in the mystery tale itself becomes an open view that presents future possibilities.

Key Words Korean classical mystery tale, abduction, cognitive imagination, ruling tale, idealized cognitive model

논문투고일 : 2020.10.15
심사완료일 : 2020.10.29
게재확정일 : 2020.11.11